

## 종교의 자유 80주년

2025년 12월 11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법정

발표 패널: 오전 9시-오후 12시, 오후 1시 20분-오후 3시  
점심 식사 및 다과 제공

한국, 일본, 미국의 종교 자유 관련 법제 비교를 주제로  
연구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심포지엄 및 주제 개요

본 심포지엄은 미국 텍사스대학교 로스쿨의 Bech-Loughlin 제1 수정헌법센터와 국제법연구소, 세인트존스대학교 로스쿨의 Mattone 종교와 법 센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교 로스쿨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제는 1945년 이후 일본, 한국, 미국의 종교자유법의 역사와 현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적 의미에서 각국의 종교자유 보장 8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열리게 됩니다.

각 심포지엄에서는 세 개의 세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세기 중반 각국에서 현대적 종교자유법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봅니다.<sup>1</sup>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 종교자유법의 현황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각국의 종교자유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종교 전통이 걸어온 여정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sup>1</sup> 미국이 연방 헌법상의 종교 관련 조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4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동일한 원칙을 한국과 일본에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세 나라는 거의 같은 시기에 현재의 법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세부 사항

한국 심포지엄은 2025년 12월 11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오전 8시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VIP 만찬이 예정되어 있으며,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심포지엄에는 통역이 제공됩니다.

종교자유법의 현황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하의 학문적 관점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곧 전달드리겠습니다.

### 참석자

미국 측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ark Movsesian – 세인트존스대학교 로스쿨 Frederick A. Whitney 계약법 교수, Mattone 종교와 법 센터 소장
2. Lauren Fielder –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국제프로그램 부학장, 국제법연구소 소장
3. Frank Ravitch – 미시간주립대학교 로스쿨 Walter H. Stowers 종교와 법 석좌교수, 교토 일본 프로그램 소장
4. Steven T. Collis –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임상교수, Bech-Loughlin 제1 수정헌법센터 및 종교와 법 클리닉 책임자, 미국법학교수협회 종교와 법 섹션 직전 의장